

#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낙태와 자살에 대한 인식

백미례\* 우성희\*

\*국립한국교통대학교

Paramedic students' perceptions of Abortion, and Suicide

Mi-lye Baek\* Sung-hee Woo\*\*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E-mail : baekmi@ut.ac.kr, shwoo@ut.ac.kr

## 요 약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낙태, 자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2016년 응급구조학과 학생 115명을 대상으로 8문항의 낙태 인식도구와 58문항의 자살 인식도구를 사용하였고 낙태와 자살 관련문항은 각각 6문항과 2문항이었다.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t-test와 ANOVA, 교차분석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낙태인식의 전체 점수는  $20.57 \pm 4.12$ 였고 자살인식의 전체 점수는  $-14.16 \pm 15.76$ 로 나타났다. 낙태 의사 결정자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임신한 여성이라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본인이나 친구가 원치 않은 임신인 경우 낙태를 하겠다고 가장 높았다.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군이 남학생( $-18.11 \pm 14.44$ )과 여학생( $-18.11 \pm 14.44$ ) 모두에서 그렇지 않은 군보다 자살인식이 높았고 여학생 중 가까운 지인의 자살 시도나 자살경험을 한 군( $-17.82 \pm 17.89$ )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군보다 자살 인식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늘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미래의 응급구조사인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윤리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생명윤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마련하고, 가족이나 지인의 자살을 경험한 적이 있는 학생들과 여학생들을 중점으로 한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자살인식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abortion and suicide for 115 paramedic students in 2016.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perception of abortion(8items), the perception of suicide(58items), related 6items of the abortion and related 2 items of the suicid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t-test, Chi-squared test and ANOVA, using SPSS 21.0. As a result, the total perception score against abortion was  $20.57 \pm 4.12$  and the total score of suicide perception was  $-14.16 \pm 15.76$ . The most answer was that pregnant women were abortion decision makers in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and abortions were the highest when they might be unwanted pregnancies. The group who had thought about suicide was higher of perceptions of suicide than the group who did not. The female students who had suicide attempt or suicide experience of close acquaintances showed higher suicide perception score than those who did not. Therefore, A bio-ethics education curriculum should be prepared to establish ethics that respects life for future paramedic students who must make decisions at the boundary between death and life.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level of positive suicide perceptions through continuing counseling and education focusing on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suicide by family members or acquaintances.

## 키워드

생명윤리, 응급구조학과, 낙태, 자살,

## 1. 서론

2010년 우리나라의 인공임신 중절률은 15.8%이

고 30-34세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25-29세, 20-24세로 나타나 젊은 가입기 여성을 중심으로 낙태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대학(원)생의 낙태율은 2009년 3.8건에서 2010년 8.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1] 또한 2015년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수는 인구 10만 명당 26.5명으로 OECD국가 중 11년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대와 30대의 자살은 가장 큰 사망원인이 되고 있다[2]. 조계화와 이현지의 연구[3]에서 생명경시요인이 개인적인 요인보다 자살을 유발하는데 더 크게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팽대된 생명경시의식은 응급구조사가 되어 많은 응급상황에서 환자처치 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생명윤리 문제이다.

따라서 미래의 응급구조사인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낙태와 자살과 같은 생명 존중에 대한 건강한 자기 결정권을 가지게 하여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건전한 직업 윤리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생명관련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낙태와 자살에 대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생명관련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본 론

### 1. 연구방법

본 연구 대상자는 2016년 12월 C시에 소재한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학생으로 여학생 56명, 남학생 59명으로 총 115명이었고,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연구도구로는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죽음생각, 생명관련 교육 여부 등을 포함한 4문항, 낙태인식 문항은 박진영[4]이 수정한 낙태 반대 정도를 나타내는 8 문항을 사용하였다. 4 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낙태반대를 지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값은 0.692였다. 자살인식 문항은 Domino 등(1980)[5]이 개발한 후 박진영[4]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58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되어있고 총 점수가 낮을수록 자살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부정문항은 역 처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값은 0.823이었다.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낙태와 자살인식은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성별에 따른 낙태와 자살관련인식은 t-test와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2. 연구결과

#### 2.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낙태, 자살인식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낙태와 자살인식은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

낙태인식 전체점수는  $20.57 \pm 4.12$ 였고 자살인식 전체점수는  $-14.16 \pm 15.76$ 으로 나타났다.

낙태 인식 점수는 남학생( $20.76 \pm 4.41$ )이 여학생( $20.37 \pm 3.81$ )과 유사하지만 약간 높게 나타났고 2학년이 가장 높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던 군이 더 높고 생명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던 군이 받은 군보다 약간 더 높았다.

자살 인식 점수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고 2학년이 그 중 가장 자살에 대한 인식이 낮았으며 죽음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던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낮고 생명관련 교육을 받은 군이 더 낮았다.

표.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낙태와 자살 인식

	n(%)	낙태		자살	
		M±SD	t/F(p)	M±SD	t/F(p)
성별					
남	59 (51.3)	20.76 $\pm 4.41$	0.616	-13.94 $\pm 14.94$	0.362 (0.718)
여	56 (48.7)	20.37 $\pm 3.81$		-15.01 $\pm 16.70$	
학년					
1학년	28 (24.3)	19.39 $\pm 5.02$	0.383	-17.35 $\pm 13.34$	2.508 (0.063)
2학년	21 (18.3)	21.04 $\pm 2.97$		-20.85 $\pm 15.16$	
3학년	38 (33.0)	21.00 $\pm 4.34$		-10.92 $\pm 14.25$	
4학년	28 (24.3)	20.82 $\pm 3.49$		-11.60 $\pm 18.86$	
죽음생각					
무	30 (26.1)	21.43 $\pm 2.89$	0.108	-13.36 $\pm 14.70$	0.444 (0.658)
유	85 (73.9)	20.27 $\pm 4.45$		-14.85 $\pm 16.18$	
생명교육					
무	43 (37.4)	20.74 $\pm 4.34$	0.794	-13.13 $\pm 14.02$	0.698 (0.468)
유	72 (62.6)	20.47 $\pm 4.01$		-15.26 $\pm 16.76$	
전 체	115 (100)	20.57 $\pm 4.12$		-14.16 $\pm 15.76$	

\* p<0.05

#### 2.2 낙태 관련 인식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누어 분석한 대상자들의 낙태관련 인식은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남학생 56명(94.9%)과 여학생 54명(96.4%)이 낙태 의사 결정자에 대한 질문에서 모두 임신한 여성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본인 또는 여자 친구의 낙태경험 유무에 대해 '없다'가 남학생은 58명

(98.3%), 여학생은 56명(100.0%)였다.

친구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하였을 경우 ‘낳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선택한 남학생은 36명(61.0%), 여학생은 34명(60.7%)으로 가장 높았다. 본인이 원치 않은 임신을 하였을 경우 ‘낳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선택한 남학생은 33명(55.9%), 여학생은 35명(62.5%)으로 가장 높았다.

낙태가 여성 건강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아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조금 알고 있다’ 라는 항목이 남학생은 34명(57.6%), 여학생은 30명(53.6%)으로 가장 높았다. 낙태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아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남학생은 54명(91.5%), 여학생은 49명(87.5%)이 ‘알고 있다’ 라고 대답하였다.

표.2 낙태관련 인식

		남 n(%)	여 n(%)	$\chi^2$ (p)
의사 결정자	임신한 여성	56 (94.9)	54 (96.4)	0.158 (0.525)
	부모	0(0.0)	0(0.0)	
	배우자(남자 친구)	0(0.0)	0(0.0)	
	태아	3(5.1)	2(3.6)	
낙태경 험	무	58 (98.3)	56 (100.0)	0.957 (0.513)
	유	1(1.7)	0(0.0)	
친구임 신시 조언	반드시 낳는 다	6 (10.2)	6 (10.7)	0.009 (0.995)
	낳지 않을 수 있다.	36 (61.0)	34 (60.7)	
	다른 방법 모색	17 (28.8)	16 (28.6)	
	본인 임신 시 결 정	반드시 낳는 다	17 (28.8)	
낳지 않을 수 있다.	33 (55.9)	35 (62.5)		
입양 등 다 른 방법 모 색	9 (15.3)	12 (21.4)		
낙태 영향	잘 안다	19 (32.2)	23 (41.1)	1.554 (0.460)
	조금 안다	34 (57.6)	30 (53.6)	
	모른다.	6(10.2)	3(5.4)	
불 법 사실	안다	54 (91.5)	49 (87.5)	0.498 (0.344)
	모른다	5(8.5)	7(12.5)	

\* p<0.05

### 2.3 자살 관련 인식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누어 분석한 대상자들의 자살관련 인식은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자살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 군이 남학생(-18.11±14.44)과 여학생(-18.11±14.44) 모두에서 그렇지 않은 군보다 자살인식이 높았다. 또한 가까운 지인의 자살 시도나 자살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도 그런 경험을 한 군, 특히 여학생(-17.82±17.89)은 자살 인식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일생동안 자살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있다’ 가 24명(42.9%)로 높았고 가까운 지인의 자살 시도나 자살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여학생이 ‘있다’ 가 17명(30.4%)로 높았다.

표.3 자살관련 인식

		남 n(%) /M(SD)	여 n(%) /M(SD)	t(p)
자살 에 대 한 생 각	무	41(69.5)	32(57.1)	0.013 (0.910)
	유	-12.12±14.96	-12.75±16.53	
지인 자살 경험	무	18(30.5)	24(42.9)	0.272 (0.603)
	유	-18.11±14.44	-18.04±16.80	
	무	51(86.4)	39(69.6)	0.272 (0.603)
	유	-13.94±14.94	-13.79±16.24	
	무	8(13.6)	17(30.4)	0.272 (0.603)
	유	-14.00±15.95	-17.82±17.89	

\* p<0.05

### III. 결 론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낙태와 자살인식에 대해 알아보고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생명의료교육의 필요성과 교육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낙태반대정도를 나타내는 낙태인식점수는 남학생이 여학생과 유사하지만 약간 높게 나타나 박진영[4]의 연구결과와 같았고 대학생의 생명의료의식을 연구한 박소연, 박경영[6]의 연구의 연구에서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여학생이 더 인공임신중절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치된 결과를 보여 주었다. 낙태 의사 결정자에 대한 질문에서도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임신한 여성이라는 비율이 가장 높아 낙태가 여성의 문제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낙태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남녀 학생 모두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나 본인이 원치 않은 임신을 하였을 경우 ‘낳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낙태를 선택한 경우가 남학생과 여학생 둘 다에서 가장 높았고, 이는 백미례, 이경숙[7]의 논문에서 연구대상자 반 정도는 태아보다는 모성 중심형으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낙태에 대해 관대해진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태아생명에 대한 올바른

윤리관정립을 위한 생명윤리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여학생, 2학년, 죽음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던 군, 생명관련 교육을 받은 군이 자살에 대한 인식수준이 더 높음을 보였다.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군과 가까운 지인의 자살 시도나 자살경험을 한 군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그렇지 않은 군보다 자살인식이 높았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일생동안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하였고 지인의 자살 시도나 자살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성호, 권인선의 연구[8]에서 자살인식도는 자살에 대해 개인이 가지는 일관된 견해라고 하였으며 우울수준과 자살태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울증 검사 등을 통해 가족이나 지인의 자살을 경험한 적이 있는 학생들과 여학생들을 중점으로 한 지속적인 상담과 생명관련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자살인식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7년 한국교통대학교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 참고문헌

- [1]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11, 10
- [2] 통계청, 2015년 사망원인통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992](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992)
- [3] 조계화, 이현지, 대학생이 인식하는 자살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내용분석,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2, pp.105-133, 2013
- [4] 박진영, 대학생의 낙태, 자살 및 안락사에 대한 인식 조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 [5] Domino, G., Gibson, L., Poling, S., & Westlake, L. Students' attitudes towards suicide. *Social Psychiatry*, 15(3), pp.127-130, 1980
- [6] 박소연, 박경영, 융합 계열간 대학생의 생명윤리의식과 자아존중감간 상관연구, 한국융합학회, 6(6), pp.255-261, 2015
- [7] 백미례 · 이경숙, 인공유산에 대한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주관성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3(12), pp.5958-5967, 2012
- [8] 송성호, 권인선, 고등학생들의 우울과 자살에 대한 인식도 및 태도와의 관련성,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3(6), pp. 2680- 2689, 2012